

바로, 사랑입니다

- 객수광 목사 / 2003. 5. 19 -

지난 칼럼에서 저는 젊은이들은 감동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
감동이 있을 때에 그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꼭 움켜쥐고 있던 보호막을 내리게 됩니다.
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?
바로 사랑입니다.

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.
그 여인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 여인은 전 세계에서
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추대되어 영국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기 위해 영국 여왕 앞에 서 있
었습니다. 그 여인의 이름은 헬렌 켈러 DR. 헬렌켈러였습니다.

여왕이 묻습니다.
“무엇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당신을 이렇게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었습니까?”
그때 헬렌 켈러가 대답합니다.
“네 그것은 사랑입니다.”
“사랑?” 여왕이 묻습니다.
“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?”
“네, 사랑은 짐승처럼 울부짖던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품고 있었던 설리번 선생님의 가슴
입니다.”

여기서 무대를 잠깐 옮기겠습니다.
미국의 보스턴 근교에 있었던 한 정신 요양소입니다. 그곳 지하실에는 앤이라는 자폐아가
벌써 몇 년째 갇혀 있었습니다.
그녀는 아무에게도 자기를 열지 않았고 아무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모든 의사와
간호사가 다 포기했습니다. 그런데 한 간호사가 앤을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하루도 빠지
지 않고 앤을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.
마침 내 2년째 되던 어느 날 앤 은 그 간호사가 놓고 간 초콜릿에 손을 댕니다. 그리고 그
것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.
몇 년이 지난 후 앤은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합니다.
병원을 퇴원하던 날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
“저도 저를 찾아와 주셨던 그 간호사 선생님처럼 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
게 찾아가 내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.”

다시 한번 무대를 옮겨 보겠습니다.
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태어난 헬렌켈러. 어느 과외선생님도
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.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. 다포기하고 있을 때 보스턴에
서 온 한 과외 선생님이 그 집에 큰 트렁크를 들고 들어옵니다. 그리곤 울부짖고 있던 헬렌
켈러를 봅니다.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다가가서 헬렌 켈러를 꼭 껴안습니다. 껴안는데 갑자기

기 그 선생님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버립니다. 그런데도 선생님은 놀지 않습니다. 꼭 껴안습니다. 그 선생님의 품에서 놀으라고 몇 시간을 비명을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마침내 지쳐서 그 선생님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듭니다.

어떤 선생님께서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

그 선생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앤, 앤 설리번이었습니다.

저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자기를 표현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.

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에서는 엄청난 아픔과 소외와 상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.

무엇이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?

오직 사랑, 짐승처럼 울부짖던 헬렌 켈러를 놀지 않고 꼭 껴안고 있었던 설리번 선생님처럼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품어 안을 때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.

⊙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! - 「온누리칼럼」 제공